

<3장 및 4장 개략>

1장과 2장에서 제기한 정서의 합리성과 도구적 합리성 두 가지 논리가 실제 중조, 중일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기초적인 사료를 통해 검증함.

조중 관계에서 중국은 1369년 도구적 서열짓기(instrumental hierarchy), 1369년-1372년에는 정서적 서열짓기(expressive hierarchy), 1373년-1424년에는 다시 도구적 서열짓기의 전략을 사용함. 한편 조선은 1369년에서 1398년까지는 공손(deference)의 전략을, 1399년에서 1424년에는 동일시(identification)의 전략을 사용함.

결과적으로 조중관계는 태조초기의 우호적관계에서 1372-1398년의 안보경쟁관계를 거쳐 1399년 이후 안정기로 나누어짐.

조일관계에서 중국은 일본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도구적 서열짓기, 정서적 서열짓기, 방어적 고립의 전략을 번갈아서 사용하고, 일본은 탈퇴, 공손, 연결의 전략을 번갈아 사용함.

결과적으로 중일관계는 초기의 1368년-1400년까지의 불화관계, 1401년-1408년 요시미츠 지배기의 예외적 조화관계, 1409년이후의 불화와 고립관계로 나누어짐.

<조중관계(고령명관계)관련 수사의 해석>

- 1369년 홍무 원년 12월 26일. 명태조 rescript(칙서?)

...其王 **或臣或賓** 盖慕中國之風為安生靈而已.... 장평은 或臣 或賓의 구분을 강조해서 초기에 고려-명관계에 향방이 전형적인 조공관계로 갈 것인지 확실치 않았음을 주장.

- 懷(비슷하게 撫 등)의 글자가 다수 발견. 당시 고려-명관계 문건에서 등장. 명초기의 중국의 대 고려전략이 회유책임을 나타내는가? 以德懷之 등.

- 장평은 心의 개념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 심이라는 단어가 자주 발견되기 때문에 정서적 서열짓기가 존재했다고 주장함. 心이라는 수사의 의미를 이후 이전의 문서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自爲聲教 논쟁. 명 태조26년 6월 18일. “爾能以所誘千戶女直之人送京師盡改前過朕亦將容爾自爲聲教以安夷人.”회유적 발상?
- 1388년 위화도회군. 以小事大, 保國之道. 장평은 안보를 위한 공손전략으로 해석.
- 1407년 명의 안남 정벌. “我則以爲一以至誠事之, 一以固城壘蓄糧餉, 最是今日之急務” 사대외교와 군사적 수단을 동시에 사용.

<조일관계관련 수사의 해석>

- 1370년, 명태조 3년 3월 29일. “...欽若昊天王道之常撫順伐逆古今彝憲...” 회유와 정벌?
- 1374년. 명태조 7년 6월 “...中書其移書諭以朕意使其改過自新轉禍為福亦我中國撫外夷以禮導人心以善之道也...”
- 1382년. 카네나가 친왕(懷良親王)의 답변. “...臣聞三皇立極, 五帝禪宗, 惟中華之有主, 豈夷狄而無君。乾坤浩蕩, 非一主之獨權, 宇宙寬洪, 作諸邦以分守。蓋天下者, 乃天下之天下, 非一人之天下也...” 천하의 다수의 군주를 상징. 그러나 이후의 군주들 간의 위계의 가능성도 인정. 명의 질서감각과 다른 관념을 보여줌.
- 요시미츠 쇼군 재위 시기 독특하게 이상적 형태의 조공수사를 보여줌. 上邦, 慕禮義, 君臣之道, 華夷一體.

<명초기 세력균형>

- 명초기의 다극적인 세력균형의 모습을 보여줌. 복원왕조, 나하추(Naghachu), 여진족, Oirats 몽골, 왜구 등
- 왕조 건립 초기 명은 한반도를 포함 주변국에 대체로 회유적이거나 정벌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줌.
- 장평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왕조는 명의 세력균형 계산 속에서 큰 변수는 아니

있음. 결국 수사적 협박에 그침. 왜구의 관리를 위해 이용하려고 한 정도.

<방법론적 문제들>

- 중국의 전략을 어디까지 세분해서 이해해야 하나. 장평은 시기를 너무 세분하고 있음.
- 지역의 질서는 어떻게 복원하는가? 이 시기 중국과 한반도 왕조들은 대체로 같은 질서관을 공유한 듯 보이나 일본과 유목왕조들은 텍스트가 같더라도 해석이 상이한 질서관을 가지고 있음. 카네나가 친왕의 사례.
- 서구 국제정치이론(여기서는 주로 영국학파)은 장평의 분석에 기여를 하기보다는 방해하고 있음. 장평은 결과의 논리와 규범의 논리가 아닌 다른 논리를 제시하기 위해 Expressive hierarchy-instrumental hierarchy 혹은 deference-identification 이라고 하지만 전달이 되는지 확실치 않음. 국제정치이론의 유행어와 사료의 번역어들이 혼재.
- 문화본질론의 문제. 장평은 계속해서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정치논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이 시도는 계속해서 중화중심주의로 귀결됨. 천하일가, 군부로서 중국의 순수한 의도 강조.
- 사료비판의 부재. 장평은 사료 자체가 정치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표면적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

<참고된 사료모음들>

吴晗 辑.1980. 朝鲜李朝实录中的中国史料.中华书局.

金渭显 编著.1983. 高丽史中中韩关系史料汇编. 食货出版社.

薄音湖, 王雄 编. 2006. 明代蒙古汉籍史料汇编. 第一, 第二辑 内蒙古大学出版社.

马文升. 1991. 抚安东夷记. 中华书局. (명대소설)

严从简. 2000. 殊域周咨录. 中华书局. (만력제시기 저작)

明史.

明实录.